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2. 진정한 부흥은 변화로부터

3. 교회와 함께 세상을 비취는 빛(춘천CBS)

6. 행복한 미소가 있는 교회(중부교회)

8. 기도로 지어갑니다 (투탑시티)

성 시 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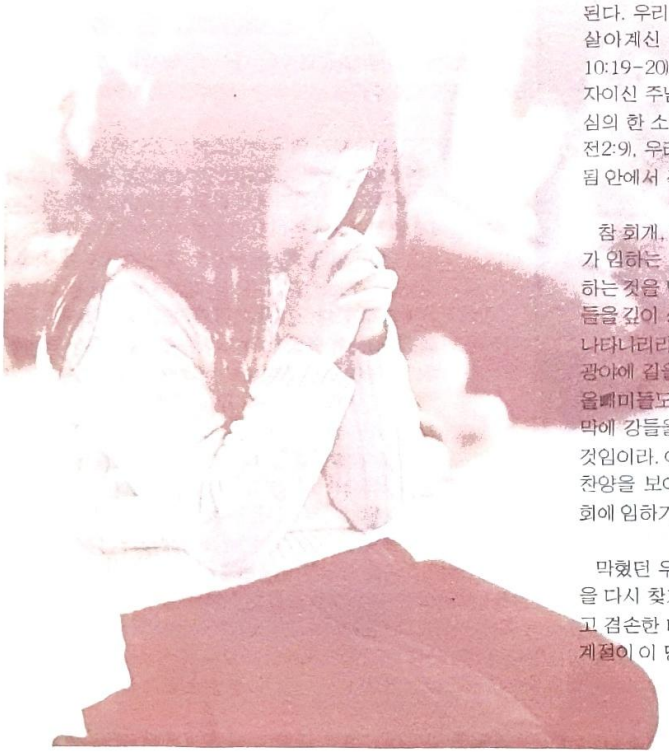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7년 2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9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 보자.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렘6:16) 또한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렘6:17) 하셨다.

Again 1907 평양대부흥(1907.1.14-15)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계절이다. 어디에 온 땅을 적시게 될 부흥의 작은 구름을 보았는가?(왕상18:44) 보았다면 말 좀 해 주라(아3:3). 부흥의 소낙비를 기다리도록. 아니 솔로몬의 영광을 듣고 찾아갔던 남방 여왕처럼 찾아 나서게(마12:42)...

영혼과 나라를 흔드는 부흥은 먼저 깊은 회개를 통해 눈으로 보듯 손으로 만지듯 주님을 실상으로 만나면서 임하게 된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히12:2)은 살아계신 권능으로 신앙의 지성소로 이끄신다(히9:8; 10:19-20). 이 일을 완전케 하신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같이(엡1:18; 4:4; 벧전2:9), 우리는 한 몸이기에(엡4:4), 우리는 다 믿음의 하나됨 안에서 걸어야 한다(엡4:13).

참 회개, 참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동반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부흥이다.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보이리로다."(사43:18-21)는 말씀이 우리 조국 교회에 임하기를 바란다.

막혔던 우물을 파듯 끊겼던 강물을 열듯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기 위한 슬림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열정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할 은혜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하며...

[편집부 이영규]

이달의 말씀

에베소서 3장 20~21절

우리 기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각 기관의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춘천의 영적 기상도의 변화를 주도할 각 기독교 단체의 회장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마음을 주시도록.

· 시장과 도지사를 위하여

희망을 주는 춘천으로 발전하며 강원도 세상을 여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도록. 특히 2014 동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G3계획을 통한 명품춘천으로 새롭게 되는 일에 갈등과 반목 없이 서로 하나 되어 살기 좋은 강원도와 춘천을 만들어 가도록.

·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위해

동면에 있는 가산감리교회(담임목사 이상북)에서 새롭게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개설된다.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하여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 대통령선거를 위해

2007년은 대통령선거로 나라발전의 중요한 기로에 서서 방향을 설정하게 될 해이다. 특별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나라가 바른 길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 연합회와 성시본부를 위해

중보기도 운동과 한교회운동, 한토기업 살리기운동을 통해 경제부흥을, 50%전도운동을 통해 전 시민 부흥을, 문화와 교육의 변혁을 통해 차세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참 좋은 은행,
새춘천신협 말고 또 있을까요?

생계형, 비과세적금 www.cuonline.co.kr

가족사랑 교회사랑 적금

- 적금불입으로 목돈 마련 및 수치교회 발전기금 출현 자동실행
- 성지순례 여행비용 마련 등등

최고 5.4% (3년만기)

- 가입대상 : 교인
- 적금한도 : 월 1만원 이상부터
- 적금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월 단위
- 이자지급 방법 : 만기 일시지급(예금보호대상)
- 교회기부금 출현 : 세후 만기 이자의 2%
  (고객이 지정한 교회에 자동 기부 됨)



새춘천신협은

근화신협의 새 명칭입니다.
초우량 서민금융기관입니다.
6년 연속 자산건전성 1등급 조합입니다.
믿음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평생친구, 평생은행
새춘천신용협동조합 (구 근화신협의 새명칭)

지금 즉시 연락주시면 최고의 금융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본점 : 춘천시 근화동 714-4 (방송통신대앞) 241-8383~4
지점 : 춘천시 중앙로1가 지하상가(원형광장내) 243-8211~2

특 집

진정한 부흥은 변화로부터

'Transformation 2007'

앞으로 약 30년이면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는 선교 신학자들의 진단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맞물려 현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건한 긴장감을 가지게 한다.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한 세계 교회의 관심은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에 주목하고 있다.



부흥과 변화를 사모하는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계계의 색깔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는 'Transformation 2007'을 진행했다. 1월 7일부터 14일까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Transform Korea 주최로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Transformation 2007'은, 한국의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모여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되짚어보며 한국 기독교와 통일 한국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시간이 됐다.







"지금이 시점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믿 된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 집회를 통해 정확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Transformation 2007은 과거의 부흥을 되돌아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성취해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재조정, 재조직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만을 위함이 아니요, 전 세계를 위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성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 피터 와그너 목사(세계추수사역 GHM 총재)

교파를 초월한 국내외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이번 'Transformation 2007' 대회는, 먼저 오프닝으로 로렌 커닝햄 목사(열방대학 총장)와 함께하는 전아제 집회를 시작으로 오정현 목사를 비롯하여(사랑의교회), 루이스 부시(Transform World 국제 디렉터),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류영모(한소망교회), 박종순(충신교회), 벤 토레이(예수원심수령수련원), 체 안(Harvest Rock교회), 정필도(수영로교회) 목사 등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집회에서는 오정현 목사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넘어서 변화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와 변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부흥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을 넘어서 변화로 나아가려면 젊은이들을 죄어서 행음하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회개하고 도덕적 주도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그랫 시넷가가 말라도 순종의 고삐를 늦추지 않길 기도 드렸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복음의 금광을 발견하도록, 총체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영적 제도약의 기름이 마련되도록,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

또한, 이번 Transformation 2007 대회에서는 김준곤 목사(CCC총재)가 축사를,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격려사를 전했고, 가정, 경제, 부흥, IT, 평신도대량 선교, 북한과 통일 등의 각 영역별 변혁 선포의 시간을 통해 평양대부흥의 교훈을 생각하며 현실의 모습을 회개했다.

"너무 은혜가 충만했고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이정옥 전도사(안산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열방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 최기문 집사(하늘비전교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영국 웨일즈에서 왔는데 웨일즈 부흥과 한국교회가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장 와 닿은 부분은, 부흥으로 시작되어서 변화가 되는 것인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조니단 에이드 목사(틴 힐링지 코리아 대표)

"한국교회에 대해 광대한 범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해주셔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과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심지신(과천중신교회 청년부)

이번 'Transformation 2007' 대회는, 먼저 1월 4일부터 6일까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주관으로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서 있었던 "7,000명 에스더 단식 구국성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13일 오후 1시부터 14일 새벽 1시까지 열리는 "The Call" 12시간 금식기도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곧이어, 14일 오후 5시부터 15일 오후 10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간구하며 "역사를 이루는 기도-Revival 2007 28시간 연속 금식기도회"로 모임을 가지며 전국에 인터넷방송으로 중계를 하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이어갔다.

전 세계 사회변혁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한국교회의 미래와 세계 선교를 위해 귑단하며 북한을 품고 기도드렸던 'Transformation 2007' 대회가, 2007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변화와 성시화의 물꼬를 트는 역사로 이어지길 소망해 본다.

[글 편집부, sarang.org 참조]

초대교회의 부흥과 사랑을 꿈꾸는 교회
춘천그리스도의 교회
영혼 사랑 실현의 해
품고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섬기자!
사랑으로 인도하자!
담임목사 조 영 호
춘천시 효자3동 625번지 8통 2반 ☎251-2354 011-369-2354

춘천 4기 어머니학교
♥일시 : 3월 28일 ~ 4월 25일 매주(수)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개설 팀장 : 민 병 임
♥문의·등록 : 김화숙 011-363-0926
민병임 018-325-1968
♥등록금 :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813-51-107783 예금주 김화숙

교회와 함께 세상을 비취는 빛~

이번시간에는 춘천CBS방송을 섬기고 계시는 김광수 본부장과의 인터뷰입니다.



김광수 본부장은 1978년 기독교방송국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 부산CBS본부장과 보도위원을 역임하고, 2005년 10월 춘천CBS방송 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기독교방송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본부장으로서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전도서의 말씀과도 같이 허무한 것이라며, 주님께서 주신 작은 기회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뿐이라는 그의 대답 속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한 사도바울의 겸손함을 보는 듯 했다. 춘천CBS방송은 춘천지역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태어난 방송임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하는 김광수 본부장의 하나님나라를 향한 소망한 외침을 들어보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독교 방송으로써의 춘천CBS방송의 사명은?

기독교방송(CBS)은 1954년 12월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초창기 기독교방송국을 세웠던 미국 선교사님들은 라디오전파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분명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6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국교회가 기독교방송국의 운영을 넘겨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기독교방송국의 운영을 위해 상업광고를 시작하였다.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기능과 함께 보도기능이 강화되었다. 상업광고와 보도기능의 강화는 방송국의 운영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반면에 기독교방송의 본래의 목적인 선교적 기능이 약화된다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기독교방송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시민과 함께 하는 방송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세상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 존재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방송은 이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춘천CBS방송도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밝히는 기독교 방송국으로써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방송, 춘천의 성도들과 교회부흥을 위해 땀 흘리는 선교방송"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밝히는 기독교 방송국 으로써의 사명을 다해야..."

기독교방송국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기독교 방송국에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 본부장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겪었다. 특히 정치권력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정권의 중심부에서 물러나면서 구속 수감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부산CBS 본부장을 마치고 인생무상을 경험하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기도생활에 마음을 쏟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나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때부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중요시 하게 되었다. 기독교방송국의 운영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들의 영성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기독교방송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방송국을 운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춘천CBS방송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태동되었다.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1950년대 초창기 기독교방송국은 미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라디오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업광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방송국은 종교방송으로 분류되면서 보도기능과 상업광고를 금지하였다. 오직 교회헌금만 가지고 운영해야 했다. 이때부터 MBC등의 타 방송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뒤쳐지는 방송국이 되었다. 사실 기독교방송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창립된 방송국이라 할 수 있다.

춘천CBS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다. 중앙본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현재 교회의 후원금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춘천CBS는 춘천지역의 성도들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다. 정상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본부장님께 구상하고 계시는 교회와의 협력방안은?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춘천CBS방송은 춘천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춘천CBS방송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인정 해야 한다. 작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나라라고 하는 큰 시각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한다. 이전에 춘천CBS는 정오 12:00에서 1:30분까지 가요방송을 내보냈는데, 지금은 복음성가를 방송하고 있다. 또한 저녁시간대인 5:30분부터 6:00까지는 지역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목사님들의 설교방송을 하려고 한다. 또한 중단되었던 교회순례프로그램을 부활시켜 2주에 1번 방송하려고 한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방송국으로 새롭게 되고자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 따뜻한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들의 노력을 바라보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7년도 춘천CBS방송국의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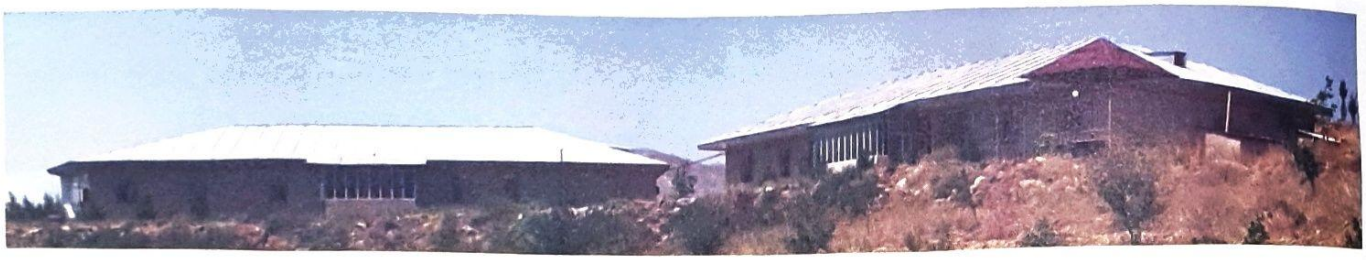
먼저 2007년은 춘천CBS방송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하여 도약의 해로 삼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TV설교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케이블TV 99번, 74번으로 송출되는 TV방송은 매일 오후 3시부터 25분간 송출하고 있으며,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방송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교대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다. 5월 2일 개국일을 전후하여 은혜의 성회를 갖고, 10월에는 축복의 감사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8월 15일은 춘천기독교연합회와 마라톤대회를 갖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 또 5월 13일 주일 저녁은 중앙감리교회와 공동으로 "인순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콘서트"를 개국기념을 겸한 음악회로 열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선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춘천CBS는 전국 방송본부 가운데 방송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또한 가청권역도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상 춘천, 홍천에 국한되어 있다. TV시대를 맞아 녹화가 가능한 스튜디오를 갖춘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화천, 양구, 인제지역으로 라디오 전파를 보내기 위한 송신소 이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춘천지역의 성도들에게 한마디 바란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방송헌금은 계속 감소하여, 3년 전의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교헌금도 점차 감소하여 개국 당시의 30%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춘천CBS방송의 활성화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올 한해 교회와의 관계회복과 후원자 개발에 전심전력하고자 한다. 특히 1000명의 개인 후원자를 발굴하려고 한다. 춘천CBS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방송이 되도록 지역 교회와 성도가 개국 당시의 감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선교방송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도와 방송헌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일시 : 2007년 1월 24일 장소 : 춘천CBS방송국
진행 : 조영춘 교정리 : 정재호 / 사진 김미경



황무지에 희망을 심으며…

부아라 한국이란 이름을 가졌던 A국

A국은 이슬람 국가로써 중앙아시아의 정신적 리더로 오랫동안 자리매김 되어왔다.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는 국가로 역사상 번화한 나라였으나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독립국가로의 위상보다는 식민지와 속국으로의 많은 역사를 이어왔다.

1747년, 부하라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으나 수십 년 못가 러시아 제국에 의해 1918년까지 합병당하였다. 짧시 독립을 되찾기는 했지만 다시 소련에 합병되었다. 유목민과 무슬림들은 스탈린의 집단 농장 체제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고 한다.

현재 A국은 1991년 12월 8일에 독립하게 되었다. 인구는 26,851,195명이며, 국민 총생산은 $522.1억, 일인당 국민 소득은 $1,900이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

쿠무쉬칸 마을은 해발 1600m의 천산의 즐기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은(쿠무)광산이 있던 마을로 소련이 붕괴되고 독립하면서 대부분의 소련 기술자들이 러시아로 들아가게 되자 폐광하여 산업을 잃고 자립의 기반을 잃어버린 가난한 마을이다.

현재 농촌지도자 훈련센터가 위치한 곳에서 마주보는 마을은 새로 형성된 마을로 원래는 물이 없어 버려진 땅이었으나 지도자 훈련센터가 들어서서 농장을 만들고 물을 끌어 오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 살게 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이제는 마을 사람과 농장이 함께 공존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마을 주민 중에 농장에서 일하면서 예수를 영접하여 가정교회로 모이는 가정이 5가정이 있고 마을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공부하고 있다.



쿠무쉬칸 농장

쿠무쉬칸 농장은 농촌지도자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도자 센터는 파르켄트 투맨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10개 마을에서 젊은이들을 모아 정신개조와 기술 등을 가르쳐서 마을 개발과 산업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4기에 거쳐 40여명의 젊은이들이 배출되어 마을 개발과 개인 발전을 위해 꿈을 키우며 훈련센터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어린이 개발 사역(CDP)

어린이가 곧 미래인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보다 내일에 초점을 맞추어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 양육하기 위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과 과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기회를 집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이다.



2) 염소 분양 사업

각 마을은 24세 이하의 젊은이가 50%를 이루는 사회로, 재정 자립도가 낮고 산업의 종자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센터에서는 나눔의 법칙을 통해 분양된 염소들을 2~3년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 분양하게 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시금석을 놓는 프로그램이다.

3) 양봉 사업(3월 시작 예정)

이 프로그램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생화가 많은 나대지의 밀원을 썩히지 않고 산업으로 이루어 내려는 프로그램이다. 훈련센터에서는 양봉을 시작하여 훈련생 중에 양봉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산업을 하려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벌통을 골벌과 함께 분양하여 경제 주체가 되도록 돕고자 한다.

4) 버섯 재배(예정)

A국의 물 부족 상태를 고려할 때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는 산업이지만 단 기간의 회전과 초기 비용 외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값싼 노동력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립성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이다.

5) 컴퓨터 센터 오픈(현재 3곳에 오픈)

아직 IT에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컴퓨터 센터의 오픈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이를 통한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위의 사역들을 통해 훈련생들의 자립과 함께 사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전을 나누고 함께 동력해 나가고 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1) 훈련 받는 젊은이들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분의 지혜로 자국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2) 계속적인 센터에 대한 외부의 도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지켜 주시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센터가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3) 함께 일할 비전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함께 미래를 꿈꾸도록
4) 센터를 통해 각 마을로 보내지는 에비 지도자들이 각 마을을 축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글. H선교사]

※ 선교현지 상황으로 실명 및 정확한 국가명을 밝히지 못함을 양해드립니다.

"푸른 꿈 인재 교실"

학창시절에 독서 생활지도사 자격도 취득하고 공부, 생활습관, 재능, 창의력으로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우수한 학생은 더욱 우수하게 평범한 학생은 특별한 학생으로.

※"푸른 꿈 인재 교실"은 Agapia 독서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모 집 대 상 : 초등학생 ~ 중 3까지
학부모설명회 : 매주 토, 월 오후 2:30 C.B.S 3층 "평생교육원 강당" (전화 예약자에 한하여 30명 선착순)

대영 E·M·I 학원
상담 : 243-5900 011-9797-4217
※교사 모집 : 푸른 꿈 인재교실의 교사가 되고 싶은 분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등수와 점수가 아닌 재능과 창의력, 그리고 자격증입니다. "푸른 꿈 인재교실"은 방황하고 갈등하는 아이들을 인재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로 바꿉니다.

향토기업 살리기 운동



성경의 사복음서 중 모든 기록에 공히 나오는 특별한 기적중의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함께 경제에 대한 주님의 뜻과 의도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소는 빈들이고 때는 어두움이 드리운 저녁,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냥 돌아간다면 모두 기진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들을 보내야 한다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하신다. "너희가 이들의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지금 우리에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둘 밖엔 없다고 한탄 섞인 말을 한다. 주님은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일 뿐만 아니라 식후 남은 조각들을 모아 12광주리를 가득 채운 이 기사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다.

너희가 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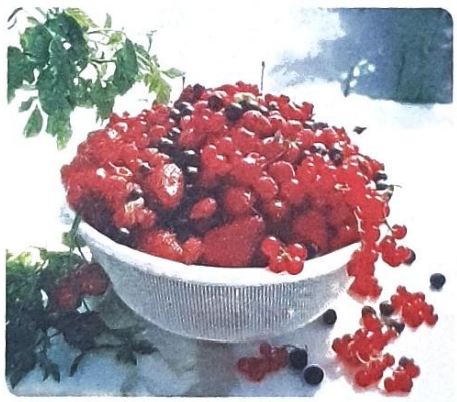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일그러진 경제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대안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필요, 즉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셨음을 보여주신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신다.

중요한 원리는 바로 "너희가 저들의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된다. 즉 복음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것, 탕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멸망과 심판받을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 영혼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친히 굶주림의 해결을 위해 그 손으로 떡을 떼시며 제자들을 통해 나누게 하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하나로 모아 50명, 100명씩 정렬하여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다. 즉 밖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또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하되 서로의 직능에 맞춰 앉게 하시는 것이 벳세다 경제 기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인 것이다.

이제 주의 일꾼들은 세상에게 이 떡을 나눌 마음을 가져야 한다. 더욱 영적인 연합과 하나 됨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1. 아나 되는 것이다.
2. 공감대를 형성할 그룹끼리 모이게 만드는 것이다.
3. 적은 것이라도 감사로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다.
4.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광주리마다 다 모아들여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다.

교회의 현상

지금 우리 교회 안의 수고하는 일꾼 중 경영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신앙과 실생활인 사업의 장벽을 느끼는 이중구조에 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별개로 구분된다. 사업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창구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부족하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구조가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까지 시간을 투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혹시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지원하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개별적인 것이기에 도시와 지역을 변화시킬 힘은 전혀 없다. 이는 게 교회의 역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각 교회마다 소속된 모든 경영업체들이 하나 되게 하는 작업은 아직 시도조차 되어본 적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독교연합체는 이러한 경제인들을 위한 모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고 지역의 경제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신앙공동체가 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과제

이를 위해 춘천 성시화 운동은 작은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터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향토기업과 토종업체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외지 초대형업체들의 독주와 횡포를 막아내며 지역 살리기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인의 교육을 위한 전문 경영아카데미를 통해 명품업체들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복지 사회단체들을 통합적으로 도움으로써 그 남은 부스러기도 허비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또 슬집이나 퇴폐향락업소, 사기성 기업은 자연적으로 지역에서 도태 되게 하여 바른 상도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연합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선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학자, 그리고 실무적 경영인들이 협의체가 생겨야 한다. 이런 것은 기업체와 사용자가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멤버십 카드와 같은 공유 라인을 이용하여 이를 통해 이윤과 소득을 모으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우리 경제계 안에 일어나기 위해선 안드레와 같은 부정적 시각이 아닌 마음을 함께 하며 우려와 불가능을 깨뜨릴 수 있는 긍정적 마음이 필요하다. 아직 어느 곳에도 시도된 바가 없는 운동이라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앞선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의 조언과 아낌없는 제안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춘천성시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자격증대비를 위한 자격취득 특별과정 모집안내

21C 복지 사회 건설의 국가정책에 맞추어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 자격증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 등록된 인기 사설에서 허락서와 보호를 받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본원에서 수료증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길잡이가 되실 것입니다. 홍보를 위한 안간 계획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야 자격취득과정 모집안내

과정명	요일	강의시간	정원	입학자격	특전	총수업
노인(케어)복지사	월/화	오후 6시~9시	25	건강한 남/여 58세 이전	수료후 자격증 취득 요양원, 노인병원 실버타운, 종합병원	15주
요양(간병)보호사			20	학력제한 없음, 2급		
심리상담사 2급	화/목	오후 6시~9시	20	고졸이상, 상담전문가로 활동하실 이	수료후 자격증 취득	15주
장례지도사 2급	목	오후 6시	30	장례업무 전반 관심 갖고 활동할 이, 동교계지도자	수료후 자격증 취득	15주

전문학사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 고졸 및 검정고시자 / 2년 4학기 졸업 후 전문학사수여, 자격증 취득 / 전문대졸 이상 / 1년 2학기 이수 후 자격증 취득 전공10 선택4 과목 / 사이버/ 디지털 대학교 연계 On Line수업 학비 저렴, 장학혜택 많음

■ 일반분야 모집안내

과정명	정원	요일	수업시간	강 사	특 전	총수업
리더십 개발	20	화	오후 6시~8시	김남현 박사 전 세명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과정 단계별 수료증 수여(1, 2, 3단계) * 학력 인정 과정 * 2단계 1과 개설	10주
대체의학 일반사요법	25	토	오후 2시~6시	박찬봉 교수 호원대호 건강원의 이사	기초반 수료 후 자격증반 편입	10주
독서인재 개발교실 (이기세아)	30	목/금	오후 7시~10시	최성환 교수 아세아인재개발원	수료 후 자격증 취득 3일 6일 개강 (총교육2회)	8주
레크레이션 교실	30	토	오후 2시~6시	정진환 교수 강원레크레이션 협회장	수료후 자격증 취득	30시간
음악분야	60	토	오후 2시~6시	김광배 교수 [illegible] 박영사 교수 [illegible] 박영후 교수 [illegible]	회원 자격 정학 회원는 [illegible]	6개월

※현,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 될수 있으며, 정원가득시 접수가 마감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본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력서 사진4매(3×4)
●모 집: 수시 모집
●문 의 처: 본원 사무실(춘천 CBS 3층) ☎033-241-8801~2, H.P:011-372-9100, 016-411-1416

원 장 김 성 호 목사
부원장 권 영 식 목사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인 재 한 국 평 생 교 육 원



행복한 미소가 있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중부교회(김덕용 목사)편입니다

춘천 중부교회는 지난 1990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에 의해 후평동에서 겨자씨처럼 시작된 교회이다. 지난 1990년대 초, 김덕용 목사가 부임한 이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밝고 행복한 성경적 교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김덕용 목사와 중부교회

중부교회가 오늘의 성경적 교회 모습에 이른 것은 김덕용 목사의 행복한 목회 철학과 헌신에 기인한 바가 크다. 김 목사는 겸손하게 중부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소중함을 역설하지만 교회의 프로그램 전체에 그의 손길이 세심히 닿아 있다.

김 목사는 강원도 안흥 인근의 부곡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대대로 오랫동안 불교를 신봉해왔다. 그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후덕한 인심에 여러 스님들이 단골로 시주를 받으러 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김 목사는 말한다. 그러던 그의 가문에서 목사가 나온 것은 어찌된 일일까?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김 목사의 모친은 오래전 신장병을 앓게 된다. 병원치료를 겸하여 사찰에서 지극정성으로 불공도 드리고 치성을 드려봤지만 모든 것이 허사. 모친의 생명은 다한 듯 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모친이 마지막 불공을 드리던 중 불상이 깨지는 체험과 함께 이웃주민의 소개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이후 모친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김 목사의 가정은 일편단심 주님만을 섬기게 되고, 당시 법조계 공무원과 퇴직 후 광산업을 하셨던 김 목사의 부친 등 온 가정이 당시 교회가 없던 마음에 힘을 모아 독자적으로 교회당을 건축할 정도로 열심을 내었다.



김 목사가 목회를 결심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후 신학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총신 대학원을 졸업한다. 졸업 후 여타의 의미 있는 목회 수련을 거쳐 대전에서 목회하던 김 목사는 춘천으로 이끌리심을 받게 된다. 그가 춘천중부교회에 부임한 이후 첫 깨달음은 교우들의 '세로은 패러다임으로의 의식전환'이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지금의 후평동 지역을 떠나 석사2지구의 새로운 예배처소로 교회당을 이전하게 된다. 당시로서는 출애굽의 심정으로 결행한 일이었다. 교회 전용건물도 아닌 지하실 교회에서, 기성교인들이 아닌 순수한 불신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 4년여 간 계속되었다. 그 과정기운데 교회의 체질은 바뀌게 되고 구도자 중심, 선교중심의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고 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하고,
주님의 몸인 형제자매들이 있어 행복한 교회"



구도자 중심의 교회, 제자중심의 교회

중부교회는 춘천의 중형교회로서 보기 드문 철저한 제자훈련으로 유명하다. 국제제자훈련원과 연계한 칼(KAL)세미나를 교회 자체적으로 6기까지 실시하였다. 새가족반(5주)과 확신반(20주), 성장반(20주), 제자반(20주), 사역반(20주)를 거쳐 G12동역훈련을 통해 주님과 김 목사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다.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철저한 제자도의 30여명 중직 제자들과 알파 코스를 접목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김 목사의 알파 코스에 대한 철학은 남다르다. 김 목사는 알파 코스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대가를 지불하는 은동'이라고 규정한다. 전도야말로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목사는 성공적 영혼구원을 위해 몇 년간의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알파 코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부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행복 소그룹이다. 행복 소그룹은 지체들이 사회 속 빛과 소금으로 흩어져서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주님안의 작은 소그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중부교회에서 길러진 제자들은 행복 소그룹의 목자요 상담가가 된다. 행복 소그룹은 불신자들을 소그룹으로 초대해서 편안한 형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를 소개하는 소그룹 전도이며 복음운동이다. 12주간 동안 준비하여 실행하는 소그룹은 셀 가족 모임의 활성화와 알과 참여 손님을 자연스럽게 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중부교회의 또 다른 매력은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모두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할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의 몸인 형제자매들이 있어 행복한 것이다. 이제 과제는 어떻게 온 교우들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온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변화시킬까 하는 점이다. 김 목사는 이 모든 과정을 질반쯤의 성공으로 이야기한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행복한 미소가 살아 있는 교회, 선교와 구제, 사랑 나눔에 힘쓰는 교회, 김덕용 목사와 안혜란 사모, 행복한 형제자매들이 있는 중부 교회는 이 시대에 대안이 될 만하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3.1절 기념 목회자 부부 세미나

- 일 시: 2007. 2. 28(수) 오전 10:30~15:00
- 장 소: 춘천중앙감리교회
- 강 사: 이 덕 주 목사(감신대학)
- 주 제: 일제시대의 수난사 및 저항운동

3.1절 기념 연합예배

- 일 시: 2007. 2. 28(수) 오후 7시
- 장 소: 춘천중앙감리교회
- 강 사: 윤 철 중 목사(중앙성결교회 원로목사)

※ 3.1절 기념 예배에 원로목사부부를 초청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선교세계관학교(MPS) 12기 안내

일 정: 오리엔테이션 - 2007. 3월 3일(토) 오후3:00~6:00
강의 - 2007. 3월 10일 ~ 5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후3:00~8:00
장 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 의: ☎033)253-3399, FAX 253-3399, H.P. 019-9903-1148, 011-362-0926
www.mpscc.net

선교세계관학교는 선교사 또는 선교동원가로서 실제적인 안목을 갖춘 21C 지도자를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선교사 파송 세계 2위로 부각된 한국교회 성도로서, 또한 가치관 혼돈과 유무형의 폭력이 난무하는 포스트모던시대에 영원, 유일한 가치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선교세계관학교 공부는 거의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품은 World Christian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 역사자료

강원도 교회 창립 약사 (略史 6)



강원기독문화연구소 대표
김 기 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1. 한국 성결교단(聖潔敎團)의 모체는 동양선교회 (1901~1907년)

우리나라는 1885년에 감리교단, 장로교단이 선교를 시작하였고, 1907년에는 성결교단이 대한제국에 선교를 시작하였는바, 원래 성결교단은 일본 도쿄에서 1901년과 1902년에 미국인 선교사 카우만(C.E.Cawman)과 킬보른(E.A.Kilbourne)이 동양에서의 복음전파를 위하여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하였다. 조직 원리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주의를 골격으로 하여 중생(重生) 성결(聖潔) 신유(神癒) 재림(再臨)을 4중 복음으로 정하여 전도에 임하였다.

2. 동양선교회의 한국선교(1907~1946년)

한국에 성결교회가 들어온 배경은 일본의 동양선교회가 경영하는 성서학원을 수료한 한국사람 <김상준> 과 <정 빈>이 1907년, 귀국하여 서울 종로 무교동에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을 세웠고, 1911년 경성성서학원을 개설하고 전도에 열중하다가 1921년 "아소교(耶蘇敎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한국 성결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교단이 해산되었다가 1945년 9월 재흥에베를 드리고, 1946년 "기독교 조선성결교회"로, 1949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62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1973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연합) 등의 교단이 생겼으나 그 뿌리는 1907년과 1921년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 두고 있다.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이란 이름으로 1907년 서울 무교동에 설립된 이 교회가 오늘의 성결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3. 강원도 최초의 성결교회는 철원교회(1914년~현재)

감리교 선교 구역인 강원도에 성결교회가 세워진 것은 「實錄 朝鮮基督敎百年.박완.씀」에 191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결교단에서 1922년부터 현재까지 발간하는 신학잡지 「活泉」 1934년 11월호에 "철원 집회에서 140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으며, 감리교회와 구세군 교역자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선교보고 기록이 있음을 보아, 철원교회의 규모가 컸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철원교회는 일본의 종교탄압, 그리고 해방, 이어서 6·25사변 등의 수난으로 교회가 사라졌다. 철원에 이어 1923년 3월 경성성서학원 지방전도대가 강원도 영동지방의 중심부인 강릉에 전도한 후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강릉교회"로 예배를 드리다가, 1925년 9월 첫 주일을 창립일로 하여 교단에 등록하였으며, 원주에는 전국 5개 구역 중 강원구역 제1대 김찰 회장으로 임명된 이문현 목사가 1933년 6월 원주성결교회를 개척하였으나 1943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교회가 해산되었다가 해방이 듬해 1946년에 박현명 목사가 재건 첫 예배를 드렸다. 춘천에는 경성성서학원 21회 졸업생 김의용 전도사가 1934년 7월 일본의 종교탄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죽림등성결교회"(현.춘천중앙성결교회)가 창립되었고, 1954년 1월 소양성결교회, 원주제일교회 등 강원도 내 곳곳에 성결교회가 창립되어 지금과 같은 큰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4. 강원도 내 성결교회의 성장모습(예방이후~현재)

강원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교단 교회가 2개 지방 127교회가 있으며 목회자 157명 장로208명, 성도 28,978명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1930년 지방회를 개최한 강릉성결교회는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라고 교단 명칭을 썼다.

(다음호 : 마무리 종합편 I)

| 영혼의 양식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예수님 - 요 1:43~51



박 찬 욱 목사
(새순성결교회)

예수께서는 친구 빌립을 통해 당신께 나아온 나다나엘을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칭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일은 오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곧 나다나엘의 어떤 면이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그는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음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자기 고향에서 나신 예수님을 배척했을 정도이니(막6:3) 다른 지방, 특히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야 오죽이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하지만 나다나엘이 끝까지 빌립의 전도를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와 보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친구의 말을 자기의 편견에 따라 무조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편견을 극복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편견은 성공적인 신앙과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간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사함이란 교묘한 말로 사람을 꾀어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간사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3:9). 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아주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눅20:47) 의롭고 거룩한 자로 위장했습니다(눅18:11,12). 이러한 간사함은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사람은 가식적인 행위와 탐욕, 허탄한 명예욕을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셋째, 그는 고요한 가운데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무화과나무 그늘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고요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어쩌다 한번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한 걸 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그가 고요한 가운데 늘 기도에 힘쓰며, 메시야의 도래를 기다렸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나보란 듯 기도했던 바리새인들(마6:5)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사람은 이처럼 내적인 경건함을 가진 자입니다. 고요함과 겸손함을 겸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참 목자요, 참 성도로 말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온갖 편견과 독선과 아집을 버리십시오. 겉으로만 잘 보이려는 간사한 마음, 위선된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십시오.

"춘천성시신문" 발전을 기원합니다
- 춘천 · 감리교 "24장로회" 회원일동 -

목적 1. (사랑 · 협동)
※구약의 아브라함, 아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대를 본받고
※특히 아곱의 열두 아들과 같이 형제애를 도모하며

목적 2. (선교 · 봉사)
※신약의 예수님 12사도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복음 선교 활동에 이바지하며 회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한다.



지도목사 곽 철 영 원로목사



현(6대) 회장 박 동 해 장로



창립회장 김용겸 장로



2대회장 노재찬 장로



3대회장 민경목 장로



4대회장 김기태 장로



5대회장 홍주표 장로



차기회장 박영서 장로



총 무 이효진 장로

회 원
(남부제일) 민경목, 김준식, 이필순, 송환순, 홍춘섭
(안 디 옥) 노재찬, 홍주표, 이효진, 민병업
(춘천중앙) 김기태, 장기호, (한길)박동해
(의암) 박영서 (광장) 김부희 (영성) 김시근
(춘일) 김규현 (신성) 심인섭 (목양) 허광동
(향산) 최광오 (회천제일) 송병조
(새소망) 김찬수 (동부중앙) 김용겸 - 장로 22명 -

창 립 : 1998년 11월 14일
모 임 : 매월 첫주 월요일 19시
부부동반 예배 / 월례회 / 친교회
말씀 : 곽 철 영 원로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도로 지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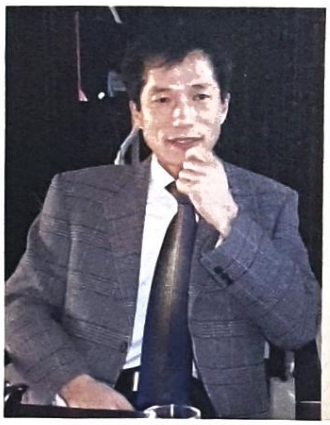
투탑시티 대표이사 박재천 안수집사(중앙성결교회) 편입니다.

온 가족의 교제 공간 카펠라와 시너스

퇴계동 신시가지에 은빛 최첨단의 탑처럼 우뚝 서서 춘천의 맑고 푸른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 투탑시티. 춘천 경제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듯 등양 최고의 휘트니스 클럽과 수영장 그리고 골프연습장과 함께 명품백화점을 입점 시켜 고급브랜드를 춘천에 소개 확산시키는 중심가로 부각되고 있다. 춘천의 인식에 걸맞지 않게 너무 고급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과 함께 주목받던 이곳. 그런데 이 건물이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대의 마음으로 건물에 발을 들여 놓았다. 환한 미소로 우리 취재진을 맞이하는 박재천 안수집사. 푸근하고 겸손함이 느껴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중앙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재천 안수집사는 춘천 토박이다. 본래 시청에서 십수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그는 뭔가 사업을 꿈꾸다가 드디어 1996년 공직생활을 접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인 1997년, IMF가 터지면서 부도가 나고 말았다. 그 후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평택까지 가서 다시 힘든 사업을 일으키다가 2001년도에 대우건설에 다니던 동생 박재민과 의기투합하여 동업을 하게 된다. 2002년도 현 카펠라 부지를 매입했고, 그 부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 동생 박재민 형제가 살던 서울 타워팰리스 옆에 삼성이 지은 스포츠클럽을 보고 그들은 "바로 저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박 사장은 그 스포츠클럽을 지은 설계사무소(테제)를 찾아가 그것보다 더 멋진 춘천의 명품건물을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미국등지에서 유수한 건축설계를 많이 했던 (주)태제는 박 집사 형제의 요청에 전 세계를 여행하며 춘천의 컨셉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에 고심하던 중 이집트 오벨리스크에서 연상된 건물을 짓기로 한다. 춘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작품을 짓겠다고 생각한 후, 2004년에 설계에 들어가 그해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드디어 2006년 8월 현 카펠라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다.

지금 투탑시티 건너에 문화시설로 짓고 있는 시너스는 본래 박 집사 형제의 부지가 아니었다. 동생과 함께 대우건설에서 일하던 선배가 부지를 매입했으나 건물 짓기를 포기해서 박 집사 형제가 그 부지를 재매입, 문화공간으로 짓기로 한다. 박 집사 형제는 CGV 영화관 건축에 노하우가 축적된 정림 건축에 설계를 맡겼다. 최근 영화관 최고급 첨단 건축성향은 호텔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개념 속에 빠르면서도 네진 공법이 들어진 형태의 건물로 설계한 후, 시너스는 올해 10월 준공예정으로 활발하게 지어져가고 있으며 12개 영화관에 총 2500석 규모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 시너스는 강원도를 뛰어넘어 전국, 세계의 명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답고 멋진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펠라(스포츠관)와 시너스(문화관)는 멋진 유리 구름다리로 이어지며 온 가족이 와서 즐거움을 만끽할 장소가 될 것이다. 카펠라는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고, 시너스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차별화를 두기도 하는데, 특히 시너스에는 영화관뿐 아니라 먹거리, 북카페 등도 만들어 문화공간이 부족한 많은 청소년들의 교제장소로 활짝 개방하려고 한다.



신앙의 성장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니를 따라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박재천 집사는 3학년 여름성경학교 때 거듭남을 경험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때 친구들끼리 '바나바 선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현재까지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헌금을 모아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다.

박 집사는 청년부 활동을 하며 아내 이귀원 집사를 만났다. 산업은행에 다니던 아버지의 발령 때문에 온 가족이 춘천으로 이사 온 이 집사는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신앙의 동지인 박 집사를 알게 되어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기도의 힘

공직을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부도났을 때나 투탑시티를 건축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이 된 것은 주변의 기도였다고 회상한다. 아내와 어머니, 장모,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투탑시티는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아내 이귀원 집사의 일상생활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서 항상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집으로 오는 것이다. 투탑시티 오픈에배때 감사한 마음에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단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금을 공급을 해주시던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반대로 자금 때문에 낙심할 지경이 되면 이떻게 그 직전에 자금을 정확하게 대주시는지! 이런 때는 하나님이 얄미운 생각까지 들었단다. 하나님의 손길을 훨씬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상황이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고백한다.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 다 멸해주시면 좋으련만 조금씩은 남겨두시어 교만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겸손케 하시며 성숙시키려는 주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이다. 투탑시티 건축은 특히 난이도가 높아 인사사고가 날 위험성도 다분했다.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지은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한다.

행복한 삶의 터전

박재천 집사는 투탑시티가 춘천의 명물로써 선진춘천의 기틀이 되길 바라고 있다. 본래 투자한대로 거두는 것이 기업의 논리인데, 박 집사는 이 건물에 종사하는 직원 1,000명이 투탑시티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만족하며 강원도에서 최고의 직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건물의 대부분은 상업용도이지만 문화관인 시너스의 10층은 컨벤션홀로 지어 다목적으로 특히 선교적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준비 중에 있다.

기도로 지어진 투탑시티가 드나드는 모든 고객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선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춘천의 멋진 전경이 보이는 12층 하늘공간에서 향긋한 차와 함께 주님의 향기를 발하는 박 집사, 그의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해본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언제,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체 환영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회의 문화를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회의만 하면 회의에 빠진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의'는 썩 달갑지 않은 주제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안의 대부분의 회의는 재미없고 지루하거나, 비생산적인 회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남의 말에 귀를 틀어막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고집불통과와 걸핏하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막창파,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결단파를 불행하게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교회밖에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대신 권위나 물리력을 동원하는 국회를 포함하여 정치판의 모습, 논리적인 주장이나 설득의 노력대신 행동 우선주의로 몰아 부치는 노동계의 모습, 소중하고 공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도 이야기를 압축력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감정 표현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모습은 진정한 회의문화가 부재된 모습의 단면들이다.

과거에 비해 트른과 회의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각종 미디어에서 자주 접하게 되지만 여전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 교회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회의문화가 발전되지 않는 한, 그 안에서 결정되는 정책이나 결론은 그리 밝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회의문화가 바뀌는 것은 그 미래가 밝아진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회의문화가 바뀌려면 건강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회의문화가 바뀌려면,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토론은 게임과 같다. 마치 테니스 게임에서 공이 이쪽 코트에서 저쪽 코트로 오고 가는 것처럼, 토론 역시 찬성과 반대측이 논리와 주장의 공을 서로 주고받는 경기라 할 수 있다. 박진감 넘치는 테니스 경기가 손에 땀을 쥐게 하듯이, 역동적인 토론 역시 짜릿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 어디 이쁜이가? 테니스가 명백한 경기 규칙에 따라 진행되듯이, 토론이나 회의도 정해진 규칙에 입각하여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건강한 토론문화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토론문화가 바뀌려면 어릴 때부터 토론문화를 익히게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토론문화에 익숙하게 기른다. 유대인 부모는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주지 않는다. 그리고 왜 이 답이 맞고 저 답이 틀린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따라서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자녀가 고도의 분석적인 사고방식과 분별력 및 창의력을 갖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토론식 공부는 유대인의 식탁에서도, 가족끼리 혹은 손님의 토론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식탁 매너를 익히고 남과 대화하는 방법과 인간관계의 방법을 배우게 한다.

여기서 탈무드 논쟁법을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탈무드식 논쟁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책상을 마주하고 탈무드를 연구하는 교육 방법이다. 둘이 탈무드를 읽어 가다가 모르는 것은 서로 의논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해석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반박한다. 상대방이 허점을 보이면 사정없이 날카롭게 질문하며 공격하는 방법이다. 서로 최선을 다하여 질문하고 응답한다. 때로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곤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가정(假定)을 제시하며, 그 경우마다 대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탈무드식 논쟁법을 자녀에게 훈련시킨다. 교육 방법에는 과거나 현재나 세대 차이가 없다. 토론식 교육 방법은 자녀의 머리를 비평적이며 분석적이고 조직적이며 통합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IQ계발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21세기형 리더십은 토론의 달인을 요구한다.

토론이 민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하는 수단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엄격한 형식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토대로 토론의 기본원리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이 되는 합의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대립될 것이다. 토론을 통해 우리는 다양해진 사회적 갈등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토대로 자신의 관점과 논리를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교회 내의 문제나 국내외의 첨예하게 대립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토론만큼 적절한 훈련 수단이 없다고 본다. 결국 튼튼한 토론 능력이야말로 갈등 속에서도 서로 타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정당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균형감각일 것이다.

[편집부, 최영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10가지 회의 문화 제안

1. 회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커피 브레이크, 브레인 스토밍-
2.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소, 방식을 고심하라.
3. 회의의 문위기를 화기애애하도록 만들어라.
4. 회의의 비용을 명시하라.
5. 회의에서는 계급장을 떼라.
6. 애매한 표현은 금물(禁物).
7. 꼴을 원하는 사람만 불러라.
8. 회의는 정시에 끝내라.
9. 회의 결과를 기록하라.
10. 회의 결과는 업무에 반영시켜라.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

- 회의 방향을 잃지 말라
- 반드시 결론을 도출하라
- 회의 문위기를 업 시키자
- 주입식 전달회의 No, 토론식 회의 Yes
- 건설적인 논쟁을 유도하라
- 불투명한 표현은 하지 말라
-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라
- 회의에서 침묵은 근무 태만
-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 회의 중간 중간에 반응을 보여라
- 긍정적인 말로 칭찬하라

회의결과의 실행을 위한 방법

- 의사결정 내용을 요약하라
- 회의록을 작성하라
- 회의 내용을 전파하라
- 회의를 평가하라
- 결정사항을 실행하라
- 뒷정리는 확실히.



예 향

어느 바보목사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었는데도, 그는 바보처럼 좋은 옷 대신 소매가 닳아빠진 옷을 입었고, 멋진 차 대신에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빌려 타곤 했습니다. 가장 안락한 아파트에 살 수 있었는데도 바보 같이 그것을 마다하고, "월세 방에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하면서 산꼭대기의 20평짜리 국민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교단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바보처럼 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아니 본인 이름에 교회를 대물림해 주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바보 같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먼 외국으로 쫓아 버렸습니다. 그의 빈소는 서울 영락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경직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편집부]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 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 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성침례교회	주천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임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 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퇴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앤투어
포인테리어	디티피아
강원기독문화연구소	김 기 태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협
김 영 명	민 병 언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협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하 규
이 병 언	장 기 영
정 친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포 · 토 · 에 · 세 · 이



시. 조 영 규 (인하대 명예교수, 전 국토통일원 연구관)

우리는 '하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로
한 '가족'이라.

이는
하나님의 창조이도다.

이를 깨달음은
은혜의 선물이니

'서로 사랑'함으로
경륜經綸에 참여하여야 하도다.

행사안내

■ 춘천YMCA ■

♣ 우리 등요의 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 일시: 2007년 2월 2일(금요일) 오전 11:00
2.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세미나실
3. 문의: 춘천YMCA ☎ 255-1008, 9

■ 춘천YWCA ■

♣ 성전꽃꽂이 강좌
1. 일시: 2월 23일(금) 오전10시 3개월 과정
2. 문의: 춘천 YWCA(☎ 254-4878)

■ 월드비전 ■

♣ 운영자문위원회 제1 차 정기모임
1. 일시: 2월 15일(목) 오후6시
2. 장소: 복지관 1층 회의실

♣ 강원어린이합창단 캠프
1. 일시: 2월 22(목) ~ 23일(금)
2. 장소: 복지관

♣ 지역아동센터 모집
1. 일시: 2월 15일부터 선착순 마감
2. 대상: 초등1-6학년 45명(학년별 선착순)
3. 교육내용: 학습지도, 영어, 한문, 체육, 종이접기, 과학실험, 사회성발달교육, 재소식반 NIE등
4. 특화내용 : 미술치료, 년 2회 건강검진, 월 1회 야외체험학습 등
5. 문의: (033) 254- 7244

※결식아동돕기 제7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1. 기간: 3월 - 6월
2. 주최: 강원도민일보 · 춘천MBC · 월드비전강원지부
3. 후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4. 성금사용처 계획
1) 강원도내(100,000,000원) - 강원도내 결식학생(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
2) 국내(80,000,000원) 도시락 사업
3) 해외(150,000,000원) - 아프리카 잠비아에 초등학교 건축사업(현재에 강원도이름명기)
5. 참여방법
1) 춘천지역은 5월 2일 13:00-16:00시까지 시청광장에서 성금모금실시
2) 성금계좌 : 농협 204-01-078120
신한 515-01-038052
3) 후원문의 : 033-912-2004, 3004.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 24시간 상시대기 신고전화 1391 번이 2007년부터 콜센터 129번으로 변경.
이에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9번, 아동 관련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577-1391 번 혹은 244-1391(-4)로 전화하면 이용가능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는 기쁨, 넘치는 행복

■ 지금! 축복의 찬고에 포인트를 쌓아두세요~

"누가 되었든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 받는 예수님입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돕을 통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외로운 사람, 알코올 중독자, 약물중독자, 매춘여성, 거리의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사람들을 거절한다면,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남긴 말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랑을 나눌 여유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기회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 행복플러스 (독거어르신 1:1 결연)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제호)에서는 춘천지역의 저소득 독거어르신들과의 1:1 결연후원 "행복플러스"를 신청 받고 있다. 매달 1만원이면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이 보다 따뜻하고 풍성할 수 있다.

[문의: ☎254-7244 담당자 엄선영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자 모집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제호)에서는 자원봉사자(팀)를 모집하고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자원봉사신청분야

활동분야	활동시간	활동요일	봉사내용
사랑의 도시락 제작	09:30-10:30	월, 화, 수, 목, 금	결식아동 및 독거어르신께 제공하는 도시락 제작.
도시락배달	10:30-12:00	월, 화, 수, 목, 금	제작된 도시락을 춘천시내 각 가정으로 직가지랑을 이용하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10:00-14:00	월, 화, 수, 목, 금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및 설거지 등 무료급식소 운영 보조.
밑반찬배달	13:00-15:00	수	춘천의 외곽지역 독거어르신들께 제작된 밑반찬(2찬) 배달.
이 · 미용 서비스	10:00-12:00	월, 화	이미용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무료 이미용 서비스 제공.
목욕서비스	10:00-12:00	금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탕으로 모시고 온 독거어르신들의 목욕 지원.
의료서비스	선택	선택( )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하여 의료적 도움 제공.
가사 · 말벗 지원 서비스	선택	선택( )	독거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 말벗, 청소 등을 지원.
생필품지원	선택	선택( )	일시후원의 일종으로, 독거어르신들께 생필품을 지원.
아동/청소년 학습지도	선택	선택( )	복지관 등록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지도.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신문사
춘천시 운교동 174-3 Y선협3층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0-7347-9004

춘천교역자연합회

춘천교역자연합회에서는 "사모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지역교회 사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목사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목회자 사모
※ 연령: 제한없음
※ 문의: 017-378-2261(박영식 사모)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칼 럼



인터넷 복음 사수를 위한 모임 제안

신 재 원 목사
새춘천교회

인터넷 사용 인구가 2006년 3월 조사대상 인구 중 74.1%에 해당하는 3,0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정보 찾기, 뉴스 · 신문보기, 이메일, 게임, 쇼핑검색 등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되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론의 중심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차 한국을 이끌어가 될 계층인데 반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편향적이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이들이 올린 리플의 몇 가지만 소개해본다.

-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절대로 그들이 첫 번째로 주장하는 "나 외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는 계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한다면 다른 종교와 차별화가 안 되어 지신들만이 선택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없기 때문이다.
- 이 세상에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감은 추악한 종교 전쟁은 영원히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다른 교파의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부르며 배척을 한다.
- 이것도 결국은 자신만이 선택 받은 자라는 배타적인 종교관에 기인하는 것이다. 불교는 종파는 달라도 욕을 하거나 배척하지는 않는다. 길이 다를 뿐 목적지는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 본래 예수는 로마인들에게 핍박 받는 이스라엘을 구하러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 것이다. 로마제국을 구하거나 이 세상을 구하러 온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그 흔한 크리스마스 캘롭송에도 나온다. 예수가 죽고나서 기독교가 확대되니까 그런 논리로는 전세계에 포교할 수 없으니 신도들이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리플은 수없이 많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 반감을 넘어서서 기독교를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저주하고 있다. 그 논리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모든 글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정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대응을 하다보니 인터넷공간은 더욱 비진리가 판을 치며 부엇이 참이며 진리인지를 분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복음의 문이 닫히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분별력 있는 진리의 누리군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는 어쩜 영적 전쟁일수도 있다.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만 정정해주는 글을 올려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바른 대응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의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강원고, 유봉여고 기독동아리 연합찬양집회
일시: 2월 10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감리교회
2) 춘천중, 고교 기독동아리임원 연합수련회
일시: 2월 12일(월) ~ 14일(수) 오후6시
장소: 미정
3) 중국단기선교
일시: 1월 31일(수) ~ 2월 8일(목)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간사 IBS
일시: 1월 29일(월)~2월 2일(금) 장소: 서울C.C.C 본부
2) 순장수련회
일시: 2월 21일(수) ~ 24일(토) 장소: 춘천C.C.C.회관
3) 인도단기선교
일시: 1월 30일(화) ~2월 8일(목)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회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월 6일 사고방식
❀2월 13일 간사총회로 쉽니다
❀2월 20일 효과적인 관계
❀2월 27일 헌신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매님)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IVF
1) 강원지방사역협의회
일시: 2월 5일(월) ~ 7일(수) 장소: 대명콘도
2) 각 학교별 챕터캠프
일시: 2월 12일(월) ~ 24일(토) 문의: 252-5200

◆JDM
1) LTC
일시: 2월 5일(월) ~ 7일(수) 장소: 지구회관
2) 캠퍼스 33 기도회
일시: 2월 26일(월) ~ 3월 3일(토)
대상: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자
문의: 252-3192 / 011-9058-3192

◆어린이전도협회
1) TCE 전도교사대학 1단계 모집 안내
일시: 3월 첫째주 ~ 한달간
오전반 9:30~11시 저녁반 6:30~10시
장소: 춘천지회 사무실(남내병원4층)
등 록 금: 150,000원
등록방법: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본회 제출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cdch/]

◆GBT성경번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2월 5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말씀: 윤요한 선교사(남아시아 A국)
2) 워크리프스쿨 리더수련회
일시: 2월 12일(월) ~ 14일(수)
장소: 송파제일교회
3) GBT 상반기 전략회의
일시: 2월 21일(수)~23일(금) 진행: 권성찬 선교사(GBT대표)
4) 춘천 비전기도회
일시: 2월 26일(월)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
말씀: 홍에스더 선교사(동남아 I-5)
문의: GBT춘천지부 033)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033@gbt.or.kr]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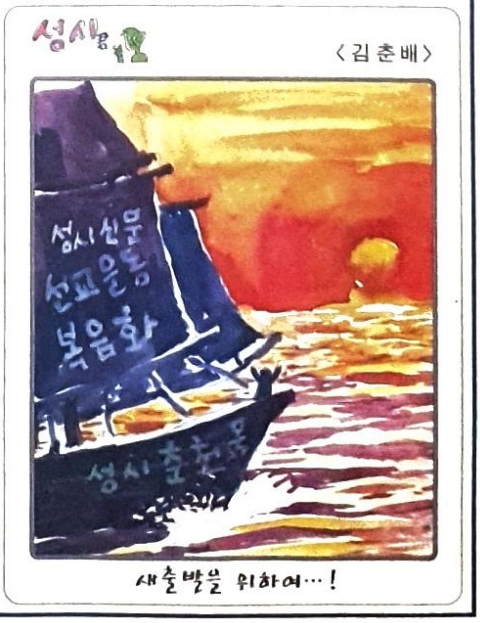
◆몽소리워십댄싱선교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7-374-2440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 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018-315-7579 지광이신교회
(신광교회 유근일목사)

◆성시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6시30분
장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와이신협3층)
문의: 256-1260

◆UBMK(올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선교세계관학교(MPS) 12기 안내
오리엔테이션: 3월 3일(토) 오후3:00~6:00
강의: 3월 10일 ~ 5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후3:00~8:0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253-3399 H.P 019-9903-1148, 011-362-0926
[www.mpscc.net]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 향기를 !!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쳐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웰빙 삼계탕
❀대형 주차시설 완비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예 약 문 의
(033)254-9191 · 9199
H·P 011-9795-5570
◆메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삼계탕 · 닭도리탕 · 한정백숙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 방향 500m지점

장로연합회 요양원 방문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회장:이무식장로)는 1월 8일(월)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경배와 찬양, 개인기도로 170여명의 노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경협의회 신년하례회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는 1월 10일(수) 오전11시 제일감리교회에서 2007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사랑의 연탄증정식



제일감리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증정식이 1월 15일(월) 오전11시 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제일교회 성도들이 소외가정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006년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금한 금액 500만원은 연탄 기름 가스 장학금 등으로 전달되었다.

흘리클럽기도회



제10회 흘리클럽기도회(회장:이학규장로)가 1월 29일(월)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 후 강원도개발공사 박세훈사장의 '알퀸시아 조성사업과 강원도 발전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2007 예스컴 후원자의 밤



청소년 선교단체 예스컴(대표:김선희전도사)은 1월 22일 오후7시 크리페에서 '후원자의 밤'을 열고, 2006년 사역을 뒤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목사)는 1월 3일(수) 오전11시 두산리조트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기독교 모든 단체 각 기관장들과 춘천지역의 목회자, 평신도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2007년 한해를 주님께 위탁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나라를 위해 서로연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006년 성시화운동본부 총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이원호목사) 제6차 정기총회가 1월 20일(토) 소양성결교회에서 성시화위원,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성시본부는 성시화운동의 재도약과 실제적인 운동체로의 전환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 것을 결정했다.

창조도시 시민포럼 출범



춘천과 강원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창조도시 시민포럼'이 1월 26일(금) 교직원공제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학계, 정치·경제·문화·종교계,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창조도시 시민포럼은 이날 상임대표에 박의범 준비위원장을, 공동대표로 김성호 평생교육원 인재한국원장, 박세훈 도개발공사 사장, 안동규 지방분권아카데미원장, 허남순 한림대교수를 각각 선출하고 사회복지 문화 경제 환경 교육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앞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사랑의 연탄배달



장로교연합회(회장:문춘식목사) 임원단은 1월 25일(목)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춘천연탄은행과 함께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였다.

군선교 제6차 총회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지회장:박인관목사)는 1월 26일(금) 오전11시 광림교회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합전, 성탄절 위문방문공연, 8.3개동 군인교회와 일반교회와의 1:1자매결연 등 군복음화를 위한 2007년도 사업을 계획하였다.

2007 짚신문학회 시낭송회



한국의 얼인 짚신정신을 가슴에 품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굳게 다지는 짚신문학회 2007년 정기총회 및 제18회 시낭송회가 1월 20일(토) 오후1시 춘천명성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짚신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성교회 박영준목사는 시낭송 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나니아연대기에 대한 기독교적 연구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작품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난 기독교의 관타지와 상상에 대한 세미나가 1월 31일(수) 오전10시 광림교회에서 열렸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가 후원하고 문화분과위원회(위원장:박인관)와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캠프리지대학교 교목으로있는 마이클워드 박사가 강연을 하였다.



